트럼프 상호관세 초읽기… 파급력은?

한 용 수의

돌직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2일(미국 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부과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지난달 12일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달 3일 자동차 관세, 5월 3일 이전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예고로 전 세계가 트럼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세계 8위 수준의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전체 수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며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3월 우리 수출은 트럼프 관세 전쟁의 간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국 수출이 1위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줄면서 크게 감소한 반면, 대미국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우리나라 기준 수출국 1위 자리가 미국으로 고착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대미국 수출 의존도가 커지며 트럼프 관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7년 GDP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해 세계 GDP가 0.6% 하락하는 것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가 겨냥하는 중국의 경우는 트럼프발 관세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5399억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5.0%를 밑돌며, 전월 대비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철강, 정제유, 신발 등 수출이 감소했다. 주요 교역국별로는 미국, 일본, 홍콩, 대만, EU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은 그러나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멕시코와 캐나다 등 우회 수출을 통해 대응하며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우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중심의 수출을 다변화해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제기된다. 양자, 다자 무역체계를 구축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일·중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일중FT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키로 한 건 의미가 크다.

한일중FTA는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일중FTA는 아시아 지역 내 공급망을 재편성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중FTA 협상이 실제 타결될지와 관계없이, 각국별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ys@metroseoul.co.kr

흔들리는 시장, 불확실성 끝내야

기자 수첩

원 관 희
〈자본시장부〉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고 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두고 한 증권사 관계자가 속내를 드러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뚜렷한 불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코스피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연초 이후 1470원대를 넘어섰다. 15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국가의 신용위험을 가늠하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때 진정세를 보였던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최근 오름세로 전환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한국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0.3636%포인트로 상승해 연말 비상계엄 수준에 근접했다. CDS란 채권 발행 국가가 파산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국가 신용도가 상승하면 CDS 프리미엄은 내려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올라간다. 최근 한국의 CDS 프리미엄 상승은 정치 불확실성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얼마나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40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데 이어, 31일에는 무려 1조575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경고음을 내놓고 있다. 씨티그룹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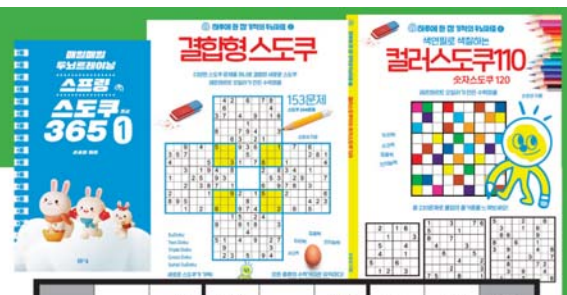
글로벌 무역 환경도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다. 시장은 나쁜 소식보다도 '답이 없는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권력 놀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신뢰가 빠져나간 뒤에 던지는 대응책은 약발이 없다.

/wkh@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 한 방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9		
	1		9		7		4	
4		2				7		
	7						2	6
3	8						1	
		5				8		7
	3		7		4		9	
		7			2			

		4	8		3	5	7	6
			6	4	9			
								4
							8	
6				5				9
	7							
7								
			5	7	6			
3	6	1	9		4	2		

9	2	4	8	1	3	5	7	6
5	8	7	6	4	9	3	2	1
1	3	6	7	2	5	8	9	4
4	9	5	3	6	7	1	8	2
6	1	2	4	5	8	7	3	9
8	7	3	1	9	2	6	4	5
7	5	9	2	3	1	4	6	8
2	4	8	5	7	6	9	1	3
3	6	1	9	8	4	2	5	7

7	5	8	4	2	3	9	6	1
6	1	3	9	8	7	2	4	5
4	9	2	5	1	6	7	8	3
1	7	9	3	4	8	5	2	6
5	2	4	1	6	9	3	7	8
3	8	6	2	7	5	4	1	9
2	4	5	6	9	1	8	3	7
8	3	1	7	5	4	6	9	2
9	2	4	8	3	2	1	5	4

오늘의 운세

4월 2일 (음 3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이다. **48년생** 상식 밖의 일이었으나 실적에는 도움. **60년생** 내 것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72년생** 사소한 일들이 모이면 큰일이 되니 기다려보라. **84년생**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박쥐 친구가 온다.

37년생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49년생** 일시적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61년생** 세상은 끝이 없는 넓은 바다. **73년생** 돈은 없으나 기술이 다양하여 대우받던 날들. **85년생** 망설임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38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50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나아갈 길도 보인다. **62년생** 돈에 큰 기대는 하지 말 것. **74년생** 잊고 살다 보니 낙원이 따로 없다. **86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39년생 지혜는 부족하나 근면 성실로 극복한다. **51년생** 한가지로 밀고 나가라. **63년생** 세상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다. **75년생** 돈보다는 기술로서 능력을 키우더라. **87년생** 자식이 시험이 목전이라면 관음 기도를 해볼 것.

40년생 결실이 보일 때 강하게 밀고 나가자. **52년생** 문서나 계약을 꼼꼼하게 살펴라. **64년생**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게 마련 생각하라. **76년생** 몸을 의지하고 위탁할 곳이 없네. **88년생** 나를 이해해 주는 배우자가 있어 감사.

41년생 배우자에게 힘으로 짓누르려고 하니 벗어나려 하는 것. **53년생** 남의 험담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65년생** 자신을 알면 흉볼 것도 없다. **77년생**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 **89년생** 남이 칭찬을 해도 겸손한 태도를.

42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54년생** 가고 싶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66년생** 운전 시에 양보하도록. **78년생** 친구의 깊은 우정에 감사. **90년생** 항상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43년생 작은 일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 **55년생**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67년생** 뜻이 있다면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공부하라. **79년생** 아랫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인내. **91년생** 결정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44년생 나이 들어 혼자서 하는 직업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56년생**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68년생** 언행에 경거망동을 주의. **80년생** 자손에게 하나를 일러주면 셋을 알게 되니 기쁘다. **92년생** 뜻하지 않은 횡재 날.

45년생 첫사랑이 아름답다 해도 지나간 일이다. **57년생** 이성에 너무 조바심하지 말자. **69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81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93년생** 인생사 쥐구멍에도 햇볕들 날이 있다 하지 않던가.

46년생 노력하니 성과도 다르다. **58년생**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승세이다. **70년생**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82년생**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94년생** 집에서 독립한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겠는가.

4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부디 자중자애하길. **59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이다. **71년생** 조급해하지 말아라. **83년생** 남은 시간을 어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95년생** 청춘이라 해도 고뇌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 것이다.

김상회의 四季

업의 빚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것이 윤회하는 삶이다. 신의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에서야 인간과 만물을 창조한 신의 곁으로 돌아가 영원히 천국생활을 한다는 것이지만, 불교는 업감(業感)이라 하여 자기가 짓고 받는 업의 힘으로 생과 사를 뛰어 넘는 의식의 발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도윤회를 한다는 것이 존재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누가 내업, 죄가 되었든 선업이 되었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스스로 각자가 자업자득(自業自得)이요, 자작자수(自作自受)를 천명하고 있다.

올해 을사년은 윤달이 있다. 음력 6월에 윤달이 드는 것이다. 윤달이 드는 해에는 조상묘의 이관이나 이장 그리고 수의 마련 등을 하며 동토도 나지 않는다 하여 집이나 담장 축대를 개축하거나 고치기도 한다. 윤달이 들 때는 땅과 하늘의 신들이 감시를 쉰다고 알려져 있기에 민간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큰 사찰에서는 생전예수재를 봉행하기도 한다. 생전예수재는 돌아가신 선망 부모나 친족 윤족을 위한 천도재와는 달리 산 사람을 위한 것이다.

즉, 살아있을 때 스스로 미리 제를 지내는 행위를 통해 살아오면서 진 빚과 업을 죽기 전에 미리 참회하여 사후를 대비하는 의식인 것이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중생사는 녹녹하지가 않다. 탐진치로 돌아가는 게 세상사다 보니 알고 모르게 불선업을 짓는 일이 많고 원수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이 오는 것을 알기에 가을철부터 미리 겨우살이 준비를 하듯 다가 올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생전 예수 제이다. 이러한 예수재 신앙은 고려 시대 때부터 널리 행해졌다는 기록도 보이며 오늘날에도 절에서는 윤년과 윤달이 있는 해에는 중요한 행사에 속한다. 업의 빚을 갚는 좋은 때인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